

이보미, 7년 만에 국내무대 우승 도전

오늘부터 27일까지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출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는 한국 여자골프가 세계 최고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정글과 같은 KLPGA 투어에서 기량을 갈고 닦은 선수들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미국이나 일본으로 진출해 우승을 휩쓸고 있다. 해외 무대에서 뛰고 있는 정상급 선수들이 종종 국내 투어에 도전하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면 KLPGA 투어의 경쟁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지난해 32개 정규 투어 가운데 해외파 선수가 우승한 사례는 12월 '현대차 중국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김효주(22·롯데)가 유일하다. 이 대회는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열린 대회로 최근 두 시즌 동안 국내 무대에서 우승한 해외파 선수는 전무하다. 올 시즌에도 '골프여제' 박인비(29·KB금융그룹)를 비롯해 LPGA 투어 통산 6승의 김세영(24·미래에셋), 2승의 이미향(24·KB금융그룹) 등이 KLPGA 투어에 도전했지만 우승과는 거리가 있었다. 특히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에 빛나는 박인비는 그 동안 국내 무대에 18차례 도전했지만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만큼 KLPGA 투어는 쉽게 넘을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최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CAT 레이디스에서 우승하며 JLPGA 투어

통산 21승째를 수확한 이보미(29·노부타그룹)가 해외파 우승에 도전한다. 이보미는 24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정선 하이원CC(파72·6510야드)에서 열리는 KLPGA 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총상금 8억원)에 출전한다. 이보미가 국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작년 7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이후 13개월 만이다. 당시 이보미는 26위에 머물렀다. 해외 무대 진출 후 국내 대회에서 고전한 것은 이보미도 마찬가지다. 2011년 일본 무대에 뛰어든 뒤 20개 국내 대회에 출전했지만 2011년 '러시안캐시 체리티 클래식' 준우승 한 차례가 최고 성적이다. 2012년 이후에는 톱10에 두 차례 들었을 뿐이다. KLPGA 투어에서 통산 4승을 기록 중이지만 2010년 10월 'KB국민은행 스타투어'를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강원도 태생인 이보미는 고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해외파 무승 징크스를 극복하고 오랜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리겠다는 각오다. 이보미는 "하마터러 시절 고향인 강원도 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지난 주 우승의 영향인지 컨디션이 아주 좋다. 높낮이가 심하고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세밀한 거리계산도 필요하지만, 좋아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즐겁게 플레이할 생각"이라고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활약중인 이보미(29·노부타그룹)

자신감을 보였다. 이보미와 함께 지난 5월에 JLPGA 투어 통산 3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린 강수연(41)도 13년 만에 KLPGA 투어 9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해외파에 맞서 올 시즌 KLPGA 투어 3승의 김지현(26·한화)이 후반기 첫 승에 도전한다. 김지현은 현재 시즌 다승과 함께 상금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후반기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이번 대회를 반등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상금 순위 2위, 대상포인트 1위에 올라 있는 이정은(21·토니모리)은 상금 순위에서도 1위 자리를 노린다. /김민근기자



진안홍삼배 전국남여배구대회 26일 개최

제8회 진안홍삼배 전국남여배구대회가 오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열린 예정으로 진안군에서는 막바지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참가접수 결과 전국 각지에서 108개 팀이 신청을 마쳤으며 대회는 ▲남자 2부(12팀), ▲남자 3부(42팀), ▲여자 3부(42팀), ▲남자 아마장년부(12팀)로 나누어 진행된다. 진안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진안군배구협회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26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진안 문예체육회관을 비롯한 8개의 보조경기장에서 2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진안군은 전국에서 온 배구 동호인들이 진안에서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로 선수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경기장 내 시설물 점검을 완료했다. 이항로 군수는 "진안홍삼배 전국 남여배구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원지역인 진안에서 재배된 우수한 품질의 진안고원 농·특산물과 마이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기자

한국 여자골프 LPGA 후반기 출격

5개 대회 연속 우승 도전 캐나다 퍼시픽 오픈 총출동

한국 여자골프가 2주 간의 달콤한 휴식을 마치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우승 사냥을 재개한다. 메이저 대회 우승 3회 포함 12승을 거두며 최고의 전반기를 보낸 한국 여자골프는 25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티와 헌트&골프 클럽(파71·6419야드)에서 열리는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총상금 225만 달러)에 대거 출사표를 던진다. 한국 선수들은 시즌 개막 후 두 번째 대회에서 첫 우승을 신고한 뒤 초반 7개 대회 중 5승을 휩쓸며 범상치 않은 활약을 예고했다. 5월 유일한 매치플레이 대회인 '로레나 오초아 매치플레이'에서 김세영(24·미래에셋)이 우승하며 경기 방식을 가리지 않고 기량을 과시했다.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US여자오픈'에서는 슈퍼투키 박성현(24·KB하나은행)이 정상을 밟은 것을 시작으로 4주 연속 우승하며 화려하게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4개 메이저대회 중 3승을 포함해 22개 대회에서 무려 12승을 쓸어 담았다. 한 시즌 최다 우승을 기록한 2015년 15승에 불과 3승 차로 접근했다. 후반기 첫 대회인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에서 한국 선수들은 5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9주 연속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소연(27·메디힐)을 비롯해 '골프여제' 박인비(29·KB금융그룹), 슈퍼투키 박성현이 우승 사냥에 나선다. 1승씩을 거두고 있는 안희영(28·PNS), 이미향(24·KB금융그룹), 이미향(27·NH투자증권), 김세영은 멀티 우승을 노린다. 정상급 기량에도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만 4차례 차지한 전인지(28)는 물론 김효주(21·롯데), 최운정(27·블빅)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후반기 첫 대회에 출전하는 유소연.

등은 시즌 첫 승을 하겠다는 각오다. 시즌 3승을 거두고 있는 김인경(29·한화)은 국내 대회 출전을 이유로 불참한다. 시즌 2승을 거둔 유소연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김인경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로 올라선다. 유소연은 지난 2014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던 기분 좋은 기억도 있다. 디펜딩 챔피언 에리아 쉐타누간(태국)이 한국 선수들의 연습 행진에 제동을 걸고 2연패를 노린다. 올 시즌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리디아 고(20)도 전반기 부진을 씻고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김민근기자

김현수, 이적 후 첫 멀티히트기록 '타율 0.222'

김현수(29·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이적 후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안타 2개를 때려내며 모처럼 활발한 타격감을 보였다. 김현수는 23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벅크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 더블헤더 1차전에 6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이적 후 첫 멀티히트이자 볼티모어 오리올스 소속이던 지난 6월17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 이후 무려 두 달여 만에 2안타 경기다. 김현수의 시즌 타율은 0.215에서 0.222(162타수 36안타)로 올랐다. 초반 두 타석은 좋지 않았다. 2회말 선두 타자로 첫 타석에 들어선 김현수는 풀카운트 접전 끝에 2루수 땅볼로 물러났고, 4회에는 2사 1루에서 루킹 삼진으로 돌아섰다. 이날 경기 첫 안타는 3번째 타석에서 나왔다. 팀이 3-9로 뒤진 7회 상대 투수 다지와 준이치의 초구를 때려 안타를 연결했다. 방망이를 조율한 김현수는 9회 마지막 타석에서도 중전안타로 출루했고, 안드레스 블랑코의 투런 홈런 때 홈을 밟아 득점도 올렸다. 한편, 김현수는 마이애미와 더블헤더 2차전에도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